

투데이칼럼

북한 특권층의 국제아동절

지난 6월 1일은 사회주의 국가들이 기념하는 '국제아동절'이었다. 북한에서도 전국 곳곳에서 어린이들을 위한 행사가 열렸다. 북한 매체는 '가장 좋은 환경에서 자라는 어린이들'이란 메시지를 강조했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부모의 성분과 지역에 따라 아이들의 일상은 완전히 다르고, 아동절 행사조차 특권층 아동에 집중됐다. 어린 시절부터 뿌리내린 계급 구분과 차별이 심하다.

평양 대성산 기슭에 위치한 대성산 유원지에는 국제아동절을 맞아 평양시 유치원생과 학부모 등 3천여 명이 모였다. 달리기, 공 옮기기, 축구 등 다양한 체육 활동을 펼치면서 어린이가 떠나 할 것 없이 밝은 표정으로 즐거워했다.

이날 행사엔 북한 주재 외교관들도 자녀들과 함께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평양뿐 아니라 지방 도시들에서도 지역별로 다양한 기념 모임이 열렸다.

하지만 북한 당국의 주장처럼 모든 어린이가 평등하게 국제아동절을 즐기는 것은 아니다. 행사 자체는 국가 지시에 따라 열리지만, 실제 준비와 비용 부담은 대부분 학부모 몫이다.



정복규

논설위원

때문에 경제적으로 열악한 지방에서는 아예 행사가 열리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실질적으로 방송되는 장면들을 보면 대부분 평양 중심이다. 평양에 있는 유치원들과 평양에 있는 교육기관들만 등장한다.

지방 교육기관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대도시의 교육기관들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산골 지역이라든가 교육소의 지역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 사회에서 아동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은 부모의 직위와 소속 기관, 거주 지역에 따라 극명하게 갈린다. 특히 평양에 거주하며 당, 군, 보위부 등 권력기관에 소속된 고위 간부의 자녀들은 이른바 '특권층 아동'으로 분류된다.

이들은 잘 갖춰진 교육시설과

문화 환경, 상대적으로 풍요로운 생활 여건 속에서 자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종이접기, 그림그리기, 붓글씨 등 아직 유치원생이지만 다양한 체험을 통해 재능을 조기에 발굴하고 있다고 선전한다. 이곳 유치원들에서는 오후마다 여러 가지 파와 소조들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로봇 소조, 바둑 소조, 그리기 소조, 외국어 소조를 비롯하여 근 40여 개의 소조들이 진행되고 있다. 공연 무대에 오른 아동들의 모습에서도 상대적으로 넉넉한 환경을 누리고 있다는 게 느껴질 정도다.

하지만 이런 기회는 평양 중심의 특정 계층 아동에게만 주어진다. 북한 당국은 무상교육 평등교육을 주장하지만, 지방에 거주하는 아이들, 특히 농민 같은

경제적 취약 계층 자녀들은 기본적인 교육의 권리도 누리기 힘들다.

농민 계급은 북한 사회에서 최하위 계층으로 분류되고, 사회 전반에 걸친 차별까지 당한다. 농민이라는 수치감이 북한에서는 엄청 크다. 아무리 개인이 노력해도 출신 성분이 평가의 기준이 되고 지역 간 이동까지 제한되는 북한 사회에서 계층을 극복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이런 북한의 계층 구조가 아이들의 내면에 자연스럽게 각인되고 있다. 북한 당국은 이런 구조를 통해 체제에 대한 충성심을 어릴 때부터 유도한다.

누가 '충성의 대가'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은연중에 구분짓고 있다.

계층 구분은 북한 당국이 사회를 통제하는 하나의 방식일 수 있다. 시정화를 일정 부분 받아들이는 청년 세대에게는 이런 구조가 오히려 사회적 불만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탈북민들 가운데는 자녀의 교육과 미래를 위해 결단을 내렸다는 사례도 늘고 있다. 북한 사회 이면엔 계층에 따라 차별을 겪으면서도 차별인지를조차 모른 채 살아가는 아이들이 있다.

사설

주택 중고거래 이사 시기

주택 거래를 놓고 각종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법망이 너무 허술하다는 비난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중고거래 앱을 통해 사기 행각을 벌이는 사람까지 등장했다.

중고거래 앱을 통해 집을 계약하고 이사까지 했는데, 계약한 사람이 진짜 집주인이 아니었던 일도 있었다. 장 모 씨는 편리하고 비용도 줄일 수 있는 중고거래 앱으로 이사 갈 집을 알아봤다.

적당한 매물을 보고 직거래에 나선 것이다. 집주인은 다른 지역에 있어 만나기 어렵다며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줬다. 집을 둘러본 뒤 마음에 든 장 씨에게 집주인은 공인중개사를 소개하며 반대편으로 전자 계약서를 썼다.

장 씨는 보증금 등 2천여만 원을 집주인에게 송금하고 이사가 지 마쳤다. 그런데 집주인과 연락이 끊기더니 관리사무소를 통

해 다시 연락이 닿은 집주인은 애초 계약서를 쓴 사람이 아니었다.

앱에 등록된 집주인과 계약을 진행한 공인중개사 모두 가짜였던 것이다. 경찰은 매물로 나온 집의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군가 알아낸 뒤, 공실인 점을 노리고 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다.

중고거래 앱에선 주택 소유 인증 절차가 느슨한 점도 악용됐다. 본인 인증을 유도하는 건 있는데 본인 인증을 하지 않아도 부동산 광고는 올라간다. 부동산 계약할 때 이런 일 당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초 광고 게시지와 부동산 소유주의 관계를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라고 플랫폼 업체에 통보했다. 하지만 권고 수준에 그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주택 거래 사기 행각에 철폐를 가하기 바란다.

청탁 의혹 관련 가정연합 입장

최근 5가지 '통일교 청탁 현안'이 일부 언론에 보도됐다. '통일교 로비 의혹'으로 타격을 입은 듯 보도는 실제적 근거들이 허술하기 짝이 없다고 가정연합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가정연합 입장에 따르면, 첫째, '유엔 제5사무국 한반도 유치'는 한반도 DMZ에 유엔 제5사무국을 유치하자는 제안으로, 이미 2000년 'DMZ 평화공원' 조성을 제안했다. 이는 세계 각국과 유엔이 각성하도록 촉구하는 평화 비전이며 특정 국가·정권·정파에 청탁할 저급한 사안이 아니라고 했다.

또한, 가정연합은 "교육부 장관 행사 참석"은 2022년 아프리카 25개국 청년부 장관들이 참석한 행사에 교육부 장관이 참석할 수 있도록 청탁했다는 의혹이 골자다. 이 행사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최상위 자문기관인 UPF(전주평화연합)가 주최했다"고 밝혔다.

이어, "캄보디아 부지 개발

지원'은 가정연합이 아니라 캄보디아 현안이다. '베콩 프로젝트'로 알려진 사업 자료는 캄보디아가 자국을 방문한 외국 기업, 단체, 개인 사업가들에게 제안하는 국가 투자 유치 홍보자료'라고 가정연합은 밝혔다.

가정연합은 "대통령 취임식 초청"은 2022년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할 수 있도록 청탁했다는 의혹이다. 가정연합 단체 중에는 평화 활동에 기반한 인연으로 각국 정상 취임식에 초청을 받는 지도자가 다수이며, 참석 사례는 헤아릴 수 없다"고도 했다.

끝으로 이들은 'YTN 인수' 청탁 의혹은 영문도 모르는 내용이라며 "가정연합은 1975년 일본 세카이닛포, 1976년 미국 뉴스월드, 1982년 미국 워싱턴 타임즈, 1989년 한국 세계일보를 잇달아 설립하고 UPI 통신사를 운영한 바 있다. YTN 공개입찰에 참여한 사실도 없고 전했다.

독자재언

휴가철, 빈집을 노리는 범죄에 주의합시다

여름휴가 시즌이 다가오면서 많은 가정이 일상의 스트레스를 벗어나 여행계획을 세운다. 가족,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기대하며 집을 비우는 동안, 빈집을 노리는 절도범죄에게는 오히려 '범죄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매년 7~8월 사이 빈집을 대상으로 한 침입 절도 범죄가 평소보다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보다는 단독주택이나 저층 빌라가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부에서 잡이 배어 있는 것이 쉽게 감지될수록 범죄의 표적이 되기 쉽습니다.

빈집 절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철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합니다. 신문이나 우편물, 우유, 택배 등이

현관 앞에 쌓이지 않도록 하고, 창문과 현관문 등 잠금장치를 재확인하고, CCTV나 경보시스템을 설치하거나 작동이 되는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또한 SNS에 여행 중이라는 사실을 실시간으로 공유하지 말고, 가능하다면 가까운 이웃이나 가족에게 여행 사실을 알리고 협조를 구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은 휴가철 빈집 절도 예방을 위해 순찰 활동을 강화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개개인 자신의 경각심입니다. '살마 우리 집은 괜찮겠지'라는 방심이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음을 생각하고 모두가 안심하고 즐거운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고대법 부인경찰서서림지구대 사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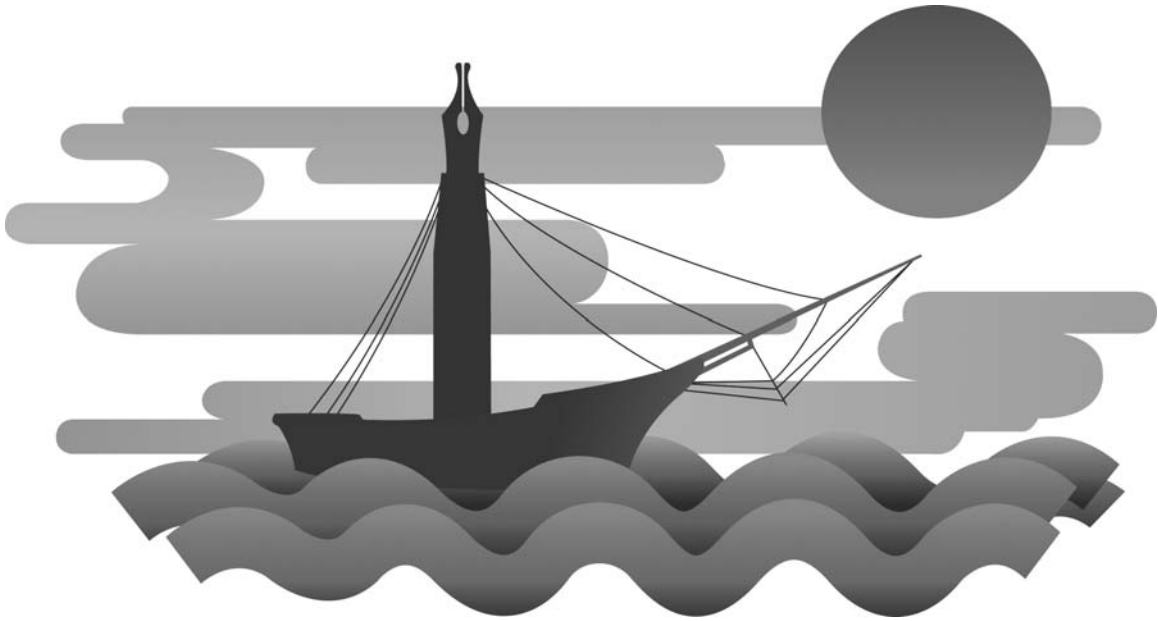
도시 아이들의 '여름나기'



지난 3일(현지 시간) 리투아니아 빌뉴스의 한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분수를 맞으며 무더위를 식히고 있다.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